

조선조 궁중과 풍류방에서의 여민락 변모 양상

반혜성

- 1. 머리말
- 2. 조선전기의 여민락 (세종부터 선조까지)
- 3. 조선후기의 여민락 (숙종부터 고종까지)
- 4. 1910년 이후의 여민락
- 5. 맺음말

1. 머리말

여민락은 세종 때 용비어천가의 한문가사를 사용하여 창제되어 궁중에서 조회악, 회례악, 연례악 등으로 채택된 이래 지속적으로 연주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세종실록』 악보에는 ‘여민락’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으나 실제 궁중에서 사용될 때는 여민락, 여민락만과 여민락령 등으로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여민락이 처음 궁중의례에서 사용될 때는 세종조에 조참할 때 관현악합주로 여민락만과 여민락령 등의 2 종류로 연주되었다. 숙종조에는 조참이외에도 하례와 진연 및 양로연과 같은 연향에서 관현악합주로 여민락만과 여민락령이 연주되었고, 새로운 여민락이 등장하여 처용무 정재의 반주로도 연주되기 시작하였다. 여민락·여민락만·여민락령 등의 3 종류로 연주되던 여민락은 순조조에 이르러 아명이 붙여져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헌종조 이후로는 다시 관악과 관현악합주로 여민락만이 연주되고, 관악합주로 여민락령이 연주되었다. 이 편성과 용례는 고종조를 거쳐 1910년 궁중 연향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유지되었다.

여민락은 다른 한편으로 민간에서 선비들의 풍류악으로 수용되어 궁중과는 다른 양상인 인격도야의 수단으로 연주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연주방식¹도 변화하게 되어 대편성의 관현악합주 대신에 거문고의 독주나 생황·양금 같은 악기와 소규모 편성이 애용되었다. 문사들이 즐겼던 풍류악에는 늘 거문고가 중심악기로 있었기 때문에 풍류악으로 연주되었던 여민락은 개인 문집에서 거문고 악보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듯 여민락은 궁중에서 연향악으로 연주되었을 뿐 아니라 민간에서 선비들의 풍류악으로 연주되면서 조선조를 거치는 동안 지속적으로 연주되어 왔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전통의 상당부분이 단절되는 가운데 여민락의 연주 방식도 변화를 겪게 되어 예전의 대규모 편성의 연향악이나 인격도야의 풍류악 대신 무대연주용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여민락이 조선조 궁중의 다양한 의례와 궁중 밖 민간 풍류에서 연주되면서 변모되는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조선조의 여민락이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어떠한 요인에 의해 변모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선전기의 여민락 (세종부터 선조까지)

¹ 여기서의 연주방식은, 궁중에서는 의례에 따라 사용되었던 각기 다른 용례와 그에 따른 악대(악현)이 포함된 의미이고, 민간에서는 풍류를 위해 사용되었던 용례와 그에 따라 사용된 악기가 포함된 의미이다. 따라서 그 의미는 음악의 용례와 사용된 악기 내지는 악대(악현)이 모두 포함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1) 궁중에서의 연주방식

여민락은 세종에 의해 창제된 봉래의 중 한 곡이다. 봉래의는 전인자·진구호·여민락·치화평·취풍형·후인자·퇴구호 등으로 구성되었고, 『세종실록』에 그 악곡이 수록되어 있다. 여민락은 실제 궁중의례에서 연주될 때는 여민락만과 여민락령으로 나뉘어 사용되었다. 이렇게 만과 령으로 나뉘는 방식에 대해 이해구는 속도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여민락만은 악곡의 속도가 느린 것이며, 여민락령은 만에 비해 속도가 빠른 것으로 해석하였다.² 따라서 『세종실록』악보에 기재된 여민락은 당시 궁중의례에서 연행될 때 여민락만과 여민락령으로 구분되어 연주되었고, 후술할 조선 후기 속중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여민락’과는 별개의 것이다. 『세종실록』과 『단종실록』에 나타난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료 1 : 세종 29년(1447 정묘) 6월 4일(을축)

여민락·치화평·취풍형 등의 음악을 공사간의 연향에 모두 통용하도록 허락하시되, 조참과 표문이나 전문을 배송하는 날 궁궐 밖을 나가실 때는 **여민락만**을, 조참하는 날 환궁하실 때와 표문이나 전문을 배송하거나 조칙을 맞으러 행차하실 때에는 **여민락령**으로 하되, 모두 황종궁을 쓰게 하시고, 계조당에 조참하는 날 자리에 오르실 때는 **여민락만**을, 궁궐 안으로 돌아오실 때에는 **여민락령**에 모두 고선궁을 쓰도록 일정한 제도가 되게 하소서. ”

사료 2 : 단종 2년(1454 갑술) 4월 25일(병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문소전의 제향 및 대소 연향의 악에는 새 악보를 쓰기로 하고, 이제 그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문소전을 출입하고 오르내릴 때의 악은 **여민락만**과 **여민락령**을 사용하고, 조참하고 배례할 때에는 천수만을 드립니다. 내연 및 사신연에는 새 악을 연주하되, 과작을 행할 때에는 **여민락령**을 사용하고, 안을 바칠 때에는 **여민락만**을 사용하고, 꽃을 바치고 꽃을 꺾을 때와 작을 바칠 때에는 보허자를 사용하고, 소선을 바칠 때에는 만엽치요도만을 사용하고, 작을 바칠 때에는 **여민락령**을 사용하고, 음식을 바칠 때에는 **여민락만**을 사용하되, 인찰을 겸하고, 작을 바치고 정재하면서 음식을 바칠 때에는 **여민락만**을 사용하되, 인자를 겸용하고, 작을 바치고 정재하면서 음식을 바칠 때에는 **여민락만**을 사용하되, 인찰을 겸용하고, 작을 바치고 정재하면서 음식을 바칠 때에는 **여민락만**을 사용하되 인자를 겸용하고, 작을 바칠 때에는 진작을 사용하고, 대선을 바칠 때에는 **여민락만**을 사용하고, 이어서 과연곡을 연주합니다.

-중략-

위의 사료에 의하면 여민락만은 세종 때 조참과 표문이나 전문을 배송하는 날 출궁 때 연주되었고, 여민락령은 조참하는 날 환궁 때와 표문이나 전문을 배송하거나 조칙을 맞으러 갈 때 연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종 때는 이 외에 문소전 제향의 출입과 내연·사신연·사연·객인연에서도 여민락만과 여민락령이 연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여민락만과 여민락령으로 나누어 연주되는 방식은 성종조까지도 계속되었고, 궁중의례에서 악기 연주를 담당했던 전정현가와 등가 및 전정고취 악대에 의해 연주되었다. 『악학궤범』의 전정현가는 응고·건고·삭고·편중·편경·박·당비파·방향·어·축·피리·장고·당적·아쟁·향비파·대쟁·월금·현금·통소·가야금 등으로 편성되고, 전정고취는 당비파·방향·피리·장고·현금·당적·가야금·월금·통소·대쟁·향비파·대고·대금·해금·박 등으로 구성되며, 등가³는 교방고·당적·아쟁·향비파·대쟁·월금·현금·통소·가야금·당비파·방향·피리·박 등으로 편성되었다. 전정현가가

² 여민락이 만과 령으로 사용된 것은 경국대전의 해석에 따라 연주 속도에 따른 구분으로 해석된 바 있다. 이해구, “여민락고”, 『보정한국음악사』, 도서출판 민속원, 1998. 116 쪽

³ 속악을 연주했던 정전, 예연, 여기, 악공배립의 악기편성이 등가이다. 이숙희, “『악학궤범』 소개 악기편성의 종류와 성격”, 『국악원논문집』 제 15 집, 서울: 국립국악원, 113 쪽

건고·응고·삭고 등의 아악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등가·전정고취와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3개의 악대는 모두 관현악 합주의 악기편성을 유지하고 있다.⁴

그러므로 조선 전기 궁중에서의 여민락의 연주방식은 여민락만과 여민락령으로 나뉘어 사용되었고, 궁중의 악대는 전정현가·등가·전정고취 등에 의해 연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민간에서의 연주방식

궁중 밖 민간에서 연주된 음악에 관한 자료는 선비들의 풍류 생활을 기록한 문집과 연주음악을 수록한 민간악보에서 찾을 수 있다. 민간악보에 수록된 많은 곡들은 그 당시 풍류방에서 즐겨 연주되었던 곡들이 어떤 곡들이었는지를 알게 하고, 문집에 수록된 풍류생활의 기록들에서는 그 당시의 음악성향이나 연주방식과 같은 것들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풍속화를 통해서도 그 당시 풍류생활의 전반을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다.

민간에서 여민락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선조 무렵 발행된 『금합자보』(1572년)에서 보여진다.⁵ 『금합자보』의 서문에 의하면, 거문고 가락은 당시의 궁정악사였던 홍선종의 가락을 기록한 것이고, 적보는 허억봉의 가락을 기록한 것이므로, 『금합자보』의 여민락은 세종조 이후 궁중에서 연주되었던 여민락을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는 궁중의 등가와 현가에서 모두 거문고가 편성되어 있던 시기이므로 『금합자보』의 여민락은 궁중에서 연주되던 여민락이 거문고 악보로 전해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금합자보』의 여민락은 『세종실록』의 여민락에 비해 간음이 추가되어 복잡한 선율 진행을 하고 있어 다소 변화된 선율로 수록되었다.⁶ 이러한 현상은 관현합주의 대편성인 음악을 독주나 중주의 소규모 편성음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타현악기인 거문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도되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즉 거문고는 관악기에 비해 한 번 소리 낸 음정을 길게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동일음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음정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민간풍류에서는 여민락이 단일악곡으로 연주되었고, 여민락만 이나 여민락령으로 연주되는 방식은 찾을 수 없었다.

3. 조선후기의 여민락 (숙종부터 고종까지)

1) 궁중에서의 연주방식

숙종조에 이르면 조선 전기의 궁중의례에서 여민락만과 여민락령으로 구분되어 연주되는 것 이외에 새로운 여민락이 등장하여 정재의 반주음악으로 연주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이 시기는 여민락만·여민락령·여민락 등의 3 종류로 나뉘어 연주되었다. 그러므로 여민락은 조선 전기에 여민락의 통칭으로 사용되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악곡명으로 해석된다. 『숙종실록』에 나타난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료 3 : 숙종 32년(1706 병술) 8월 27일(임자)
인정전에서 진연하여 예를 받고 여흥을 즐기다. -중략-
임금이 여를 타고 나오니, 이때에 의장이 움직이고 음악은 **여민락만**을 연주하였다. -중략-

⁴ 임미선, “조선조 전정현가의 문헌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⁵ 안상이 명종 때 장악원 첨정이 되어 그 당시 악사들의 가락을 악보로 엮어 1572년 간행된 악보이다. 『안상금보』라고도 한다. 『한국음악학자료총서』 권22, 서울: 국립국악원, 1987

⁶ 『금합자보』에는 거문고보와 적보의 여민락이 병기되어 있는데, 적보가 세종실록 여민락과 유사한 진행을 보이고 있고, 거문고보는 적보보다 동일한 음을 반복 진행하는 간음이 많다. 이는 악기 특성상 음정을 지속 시키기 위해서라고 보았다. 이정엽, “『세조실록』 『금합자보』 『속악원보』 여민락의 변천연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석사학위논문, 2002

왕세자가 첫 잔을 바치고 대치사관이 바쁜 걸음으로 어좌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치사하기를, ‘왕세자 모는 삼가 천천세의 수를 올립니다.’ 하고, 임금이 잔을 드니 헌가에서 음악을 시작하여 **여민락만**을 연주하고, 제조가 점에 잔을 도로 놓으니 음악이 그쳤다. -중략-

임양군 이환이 여섯째 잔을 바치고 임금이 잔을 드니, 음악은 **여민락만**을 연주하고 무동이 들어와 무고를 주었다. -중략-

영돈녕 김주신이 여덟째 잔을 바치고 임금이 잔을 드니, 음악은 **여민락령**을 연주하고 무동이 들어와 향발을 주었다. -중략-

소선을 물리고 대선을 바치니, 음악은 태평년지악을 연주하였다. 이어서 **여민락**을 연주하고 처용무를 바치었다. -중략-

위의 기록 이외에도 숙종 40년(1714년 9월 19일)과 숙종 45년(1719년 4월 18일, 9월 28일)의 실록 기사를 보면 새로운 여민락이 추가되어 처용무의 반주 음악으로 등가에 의해 연주되거나 고취악으로 임금의 행차에 연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여민락이 여민락만·여민락령·여민락 등의 3종류로 나뉘어 궁중에서 연주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숙종대에는 악대의 편성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인데, 전정헌가에서 가야금·거문고·월금 등의 현악기가 제외되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규모가 축소되는 것 이외에 관현악 합주 형태에서 관악합주 형태로 변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궁중에서 관현악편성의 틀을 유지하는 편성은 정재반주를 담당하던 등가로 압축되고, 이러한 모습은 조선 전기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⁷

숙종조 이후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후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다. 전란 이후 산실된 궁중의 여러 제도가 수습되고 정상화되면서 궁중연회에서 숙련된 악사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궁중의 악공과 악생들이 장악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지방으로 떠돌고 있었으며, 복귀한 악공과 악생들조차도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장악원을 떠나는 형편이었다. 그 이유는 궁중으로 복직을 하게 되면 부역의 의무와 함께 궁핍한 생활의 연장이 되므로 보다 나은 음악활동을 할 수 있는 풍류방의 전문악사 노릇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과 지방에서 새롭게 등장한 음악 수용층과 교류하면서 신분적·경제적·예술적 상승을 도모하고자 함이었다.⁸ 그러므로 이 시기부터는 풍류방의 음악문화가 선비들이 인격도야의 수단으로서 연주활동을 하는 것 이외에 전문악사들과의 합주를 통해 질적이나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시기이다. 아울러 이러한 활동은 궁중과 민간의 음악문화를 잇는 역할을 하여 조선후기 음악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숙종조에 정재반주로 새로이 등장하여 등가에서 연주되었던 여민락은 민간에서 거문고 가락으로 연주되던 여민락이 다시 궁중으로 흡수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전술하였듯이 이 시기는 전정헌가에서는 현악기가 제외된 관악합주 형태로 변모되었고, 등가만이 거문고 같은 현악기를 포함한 관현악 편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거문고 가락으로 연주되었을 여민락은 자연스레 등가에 의해 연주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등가는 그 당시 정재의 반주음악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여민락은 궁중의례의 정재 반주음악으로 정착하게 된 것이라 본다.

이러한 과정을 정리해 보면 『세종실록』의 여민락이 민간의 거문고 가락으로 옮겨져 연주되다가 세월이 지난 후 다시 궁중으로 역 유입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한다. 그러므로 궁중연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여민락이 민간에서 현악기중심으로 연주되던 풍류방의 여민락이라면⁹ 전정헌가가 아닌 현악기가 포함된 등가에 의해 연주되는 것이

⁷ 임미선, “조선조 전정헌가의 문헌적 연구”, 88 쪽 -92 쪽

⁸ 문호철, “조선후기 ‘풍류방’에 관한 소고”, 『시조학논총』 18집, 249 쪽 -255 쪽

⁹ 여민락이 숙종 때 정재 반주곡으로 연주되면서 처음 등장하여 사용되다가 순조 때 『진작의궤』(1828)에서 여민락향이란 악곡명으로 다시 보여지며, 여민락향은 향악 여민락을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그 이유는 풍류방에서의 여민락은 기존 궁중에서 연주되던 관악 중심이 아닌, 거문고를 중심으로 한 현악기 위주의 연주형태이기 때문이다. 이후로 여민락은 숙종조를 지나서도 등가에 의해 연주되었고, 여민락·여민락만·여민락령 등으로 나뉘어 연주되는 방식도 영조, 정조대를 지나 순조 조까지 계속 되었다.

순조조에는 연향에서 사용되는 전체적인 연주 악곡수가 축소되는 한편 악곡에 아명이 사용되던 시기이다. 순조 9년 (1809년 2월 27일) 실록의 기사에 의하면 여민락만과 여민락령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여민락이라는 이름으로만 등가와 헌가에서 연주되고 이외의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궁중 연향의 기록을 남긴 의례와 홀기에 의하면 여민락·여민락만·여민락령의 악곡에 다양한 아명들이 붙여져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따라서 『순조실록』에 나타난 여민락은 『고종실록』에 보이는 여민락과 마찬가지로 여민락 계열 곡의 총칭으로 판단된다.¹¹

여민락·여민락만·여민락령 등 3 종류로 나뉘어 연주되던 시기는 순조 27년 (1827년) 까지만 나타나고 그 이후로는 다시 여민락만과 여민락령으로 나뉘어 연주되었다. 그리고 헌종과 철종조를 지나 고종 31년 (1894년 2월 7일)과 고종 38년 (1901년 9월 8일), 39년 (1902년 5월 27일) 실록의 기사에는 여민락이 헌가에서 연주된 사실이 각각 한번씩 나타나고, 등가에서는 여민락이 연주된 경우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여민락은¹² 순조 27년 (1827년)까지만 등가와 헌가에서 연주된 예가 나타나고 그 이후로 헌가에서는 연주된 경우가 있지만 등가에서 연주되지 않았으므로 등가에 의해 연주되는 여민락은 헌종대 이후로는 단절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고종조에 보이는 여민락은 헌가에서 연주되었으므로 여민락만이거나 여민락령이 되겠다.

숙종조 전정헌가는 응고·건고·삭고·편중·편경·박·당비파·방향·어·축·피리·장고·당적·아쟁·비파·대쟁·대금·해금·통소 등으로 편성되고, 전정고취는 당비파·방향·피리·장고·당적·통소·대쟁·비파·교방고·대금 등으로 구성되며, 등가는 교방고·당적·아쟁·비파·현금·대금·해금·통소·가야금·방향·피리·박 등으로 편성된다.

전정헌가의 경우 이 시기에 이르면 거문고·가야금·월금 등이 제외되면서 관악합주의 편성으로 성격이 바뀐다. 따라서 숙종조에 여민락만과 여민락령을 연주하던 전정헌가는 관악합주로 완전히 전환되었지만, 여민락을 연주하던 등가는 관현악합주 편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1910년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2) 민간 풍류방에서의 연주방식

이 시기에 여민락을 기보하고 있는 악보는 『신증금보』(1680년)¹³로부터 시작된다. 『신증금보』 여민락은 『금합자보』 여민락과는 다른 진행을 보이고 있으며, 소규모의 연주 형태인 방중악에 알맞은 진행 방식을 전개했다고 보여진다.¹⁴ 다음 시기의

뜻하는 용어로 해석하였다. 송방송, “조선후기 여민락 악곡의 전승양상”, 『한국음악연구』 제 41집, 2007.

¹⁰ 여민락은 전천환지곡·전추세지곡, 여민락령은 감황은지곡·경성지곡·구오강녕지곡·만세성지곡·상운지곡·성수무강지곡·옥축춘지곡·응상지곡·응천개운지곡·장생락지곡·정상지곡·천년만세지곡, 여민락만은 경성지곡·만영무강인·빈초연지곡·성수영지곡·승화지곡·영남산지곡·일중광지곡·태계평지곡·행위지곡의 아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송방송, “조선후기 여민락 악곡의 전승양상”, 155 쪽 표11

¹¹ 여민락을 만과 령으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예는 왕조실록에서 몇 차례 보인다.

¹² 여민락·여민락만·여민락령 등을 총칭한 의미

¹³ 1680년 신성이 편찬한 거문고보. 『한국음악학자료총서』 권2, 서울: 국립국악원, 1981

¹⁴ 『금합자보』 여민락현보 부분은 거문고의 악기 특성상 음정을 지속 시키기 위해 동일한 음정을 반복하는 진행이 많고, 『금합자보』 여민락 적보 부분은 현보 부분에 비해 『세종실록』 여민락과 더 유사하다. 그러므로 『금합자보』 『세종실록』 여민락은 같은 계열로 보인다. 그러나

『어은보』(1779년)¹⁵에서는 여민락이 현행과 같이 7장의 구조로 변화되어 나타나지만 그 선율은 『신증금보』와 거의 동일하다. 『어은보』 여민락은 영조 때의 거문고 명인 김성기¹⁶ 가락을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7장으로 연주되는 방식은 다음시기의 악보인 『삼죽금보』·『아금고보』·『칠현금보』·『양금여민락보』·『학포금보』·『방산한씨금보』 등의 악보를 거쳐서 전체 7장의 현행 여민락으로 전승되었다. 따라서 숙종조 새로 등장한 여민락은 전란으로 흩어졌던 악사가 궁중으로 복귀하면서 풍류방에서 거문고와 같은 현악기에 의해 연주되었던 여민락을 등가에서 연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전정헌가는 현악기가 제외된 관악합주 형태이었으므로 풍류방에서 연주되고 있던 여민락은 등가로 옮겨질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여민락은 민간악보 중에 거문고보 이외에도 가야금보·양금보·칠현금보 등에서 전해진다.¹⁷ 그러므로 거문고·가야금·양금·칠현금 등의 악기로 여민락이 연주되었고, 풍속화에서 보여질 때는 이외에 생황·젓대·비파·해금·피리 등의 악기로도 풍류음악이 연주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주 형태는 주로 독주나 2-3인 정도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연주하기도 하였으나 한가지 악기를 여러 명이 동시에 연주하지는 않았다. 이 시기에 풍류음악의 연주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풍속화에 나타난 연주 모습은 세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선비나 중인의 신분으로 유유자적하게 독주하며 풍류를 즐기는 것이고,¹⁸ 둘째는 거문고나 비파 같은 현악기는 선비나 중인의 신분층에서 연주하며 해금이나 대금 같은 관악기는 전문 악사를 초대해서 함께 연주하는 것이고,¹⁹ 셋째는 전문악사와 기녀가 춤과 연주를 제공하며 풍류방의 흥을 돋우고 있는 모습이다.²⁰

다음은 개인 문집에서 보이는 풍류방의 연주방식이다.

사료 4: <청성집> 중 ‘기유춘오악회

담헌 흥대용은 가야금을 펼쳐 놓고, 성경 흥경성은 거문고를 잡고, 경산 이한진은 통소를 소매에서 꺼내고, 김억은 서양금의 채를 손에 들고, 장악원의 공인인 보안 또한 국수로서 생황을 불었는데, 담헌의 유춘오에서 모였다. 성습 유학중은 노래로 흥을 돋우었다. -중략-²¹

사료 5: <태호집> 중 ‘서김생화후’

-중략- 담헌이 비파를 타며, 김생은 거문고를 타고, 태화는 듣는구나. 태화가 한가하니, 태화가 한가한 연후에야 비파와 거문고가 조화되어 즐거움이 넓어지니, 이에 뜻을 둔 자는

『신증금보』 여민락은 동일한 음정을 지속시키기 위해 반복 진행을 하지 않고 좀 더 가락적인 진행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진행 방식은 현행 관현악 편성으로 연주되는 여민락과 유사하여 『신증금보』 여민락은 현행 여민락을 수록한 가장 오래된 악보라 생각된다. (문숙희, “17세기 이후 현악보허자의 리듬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사학회 설립 209주년 기념 “2008음악학술대회”발표 논문을 읽고 필자와 대담 중 『신증금보』는 현행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악보집이라는 동의를 얻었음)

¹⁵ 숙종과 영조 무렵 거문고 명인 김성기 가락을 제자가 편집한 악보 『한국음악학자료총서』 권17, 서울: 국립국악원, 1979

¹⁶ 김성기는 통소와 비파에도 능했다 함 『조선후기 문집의 음악사료』, 90 쪽 -93 쪽

¹⁷ 양금악보로는 『일사금보』 『협률대성』 『서금보』 『아양금보』 『양금여민락보』 등이 있고, 칠현금보는 『칠현금』, 가야금보는 『방산한씨금보』에 전한다.

¹⁸ 김득신의 <풍속도>, 김홍도의 <단원도>, <포의풍류도>, <월하취생도> 유홍준·이태호편, 『유희삼매 선비의 예술과 선비의 취미』, 도서출판 학교재, 2003 152-155쪽

¹⁹ 김홍도의 <후원유연>, 신윤복의 <상춘야흥>, 김준근의 <거문고와 단소 어르기> 조홍윤/게르노트 푸르너, 『기산풍속도첩』, 서울: 범양사, 1984 136,137쪽. 『한국음악학자료총서 37 조선시대 음악풍속도 1』 서울: 국립국악원, 2002 197쪽

²⁰ 작자 미상의 1814년 <수갑계첩>, 신윤복의 <납량만흥>, 이명기의 <후원유연> 오주석, 『옛그림 읽기의즐거움』, 서울: 솔출판사, 1999 94-101쪽

²¹ 『조선후기 문집의 음악사료』 민속원, 2002 <청성집> 중 ‘기유춘오악회’ 80 쪽 -81 쪽

구차히 스스로 얽어매지 않는다. -중략-²²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후기 민간 풍류방에서 여민락은 거문고와 양금보에서 전해지고 있으며 연주 방식은 독주 또는 현악기 위주로 연주되는 소규모 편성으로 연주되었다. 특히 이 시기는 풍류방에 전문 악사들이 개입하면서 풍류음악 질적, 양적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4. 1910년 이후의 여민락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 지면서 조선왕조는 이왕가로 개칭되고, 종묘제례와 문묘제례를 제외한 모든 궁중의식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궁중연향은 더 이상 실행되지 않았고, 전정헌가에 의해 연주되었던 여민락만과 여민락령도 사실상 연주될 기회를 잃게 되었다.²³ 장악원은 교방사(1897)-장악과(1907)-아악대(1911)를 거쳐 이왕직아악부(1925)로 개칭되는 가운데 계속되는 감원으로 1915년에는 57명의 인원만이 궁중음악을 지키게 되었다.²⁴ 이러한 실정을 극복하고자 이왕직아악부는 아악부원 양성소를 설치하여 아악생을 공모하여 이들을 교육시키고, 월례 연주회인 이습회를 기획하여 단절의 위기에 놓인 궁중음악의 전승을 꾀하였다. 또한 자의적인 연주는 아니었으나 경성방송국이 라디오 방송을 개시한 이후로 1934년부터 월 1회씩 아악 연주를 제공하였고,²⁵ 외국에서 사절단이나 일본의 상류층 인사가 방문했을 때, 또는 음악대회, 자선회, 창경원 벚꽃 축제, 위문, 건국 기념일 등 각종행사에도 동원되어 연주 활동을 하였다.²⁶

이와 같이 이왕직아악부는 조선 왕조를 위하여 궁중의례를 포함한 연주는 더 이상 할 수 없었으나, 기타의 용도로 연주할 기회는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궁중의례에 따라 연주하던 방식이 무대 연주용으로 전환되면서 그 규모는 단쟁이 위주로 축소되고 연주곡목에도 변화를 가져왔다.²⁷

이 시기 여민락은 여민락·여민락만·여민락령·해령 등 4종류가 연주되기 시작하였다. 풍류방에서 연주되었던 여민락은 승평만세지곡, 궁중에서 연주되었던 여민락만은 경록무강지곡, 역시 궁중에서 연주되었던 여민락령은 태평춘지곡 등으로도 불렸고, 이왕직아악부에 의해 새로 등장한 ‘해령’²⁸은 서일화지곡이라는 아명이 사용되었다. 해령은 1920년에 제정된 이왕직아악부 제1기생 음악과 배정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1931년 개정된 제4회 아악생교과철에는 경록무강지곡(만), 태평춘지곡(본령), 서일화지곡(해령), 승평만세지곡(여민락) 등 아명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²⁹ 또한

²² 『조선후기 문집의 음악사료』 <태호집> 중 ‘서김생화후’ 96 쪽 -97 쪽

²³ 등가에서 연주되는 여민락은 헌종조부터 이미 연주되지 않았다.

²⁴ 이정희, “이왕직아악부의 활동과 안팎의 시기”,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국내학술회의 유인물, 2004. 1 쪽

²⁵ 처음 아악 방송을 시작할 때는 ‘아악은 왕 전하가 들으시는 음악이지 아무나 들을 수 없는 것이라’하여 공문을 발송하여 강행해야만 하였다. 이혜구, “1930년대의 국악방송”, 『국악원논문집 제9집』, 251 쪽

²⁶ 이정희, “이왕직아악부의 활동과 안팎의 시기” 6 쪽

²⁷ 1910년대부터 민간의 음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고 1920년대 이후부터는 민간음악의 레퍼토리가 자리를 잡았으며 1940년대 이후로는 창작 악곡도 연주하게 되었다. 권도희, “장서각 소장 「조선아악」의 해제와 근대음악사료적 가치에 대한 고찰”, 발표문

²⁸ 해령은 일반적으로 여민락령을 본령이라 하고, 여기서 파생된 곡으로 분류하는데, Jonathan Condit는 1900년대 이후의 곡으로 보았다. Condit, Jonathan, The Evolution of Yomillak from the Fifteenth Century to the Present Day, 『장사훈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서울: 한국국악학회, 1997

²⁹ 성기련, “이왕직아악부원 양성소의 음악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국내학술회의

『조선아악』(1918년-1921년)³⁰에는 령, 만, 민악(여민락)이라 하여 이 시기에는 해령은 나타나지 않는다.³¹ 따라서 정확히 해령이 언제부터 연주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전술된 정황에 따라 최소한 1920년대 이후부터 이왕직아악부에서 연주된 곡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왕직아악부에 의해 연주되었던 여민락은 여민락만·여민락령·여민락·해령 등 4종류로 연주되었다고 하겠다.

1930년대 이왕직 아악부의 악기편성법에 의하면 여민락은 관악으로 연주될 때는 승평만세지곡이라 하여 향피리(2)·대금(2)·당적·아쟁·해금·장고·좌고·(편종·편경)으로 편성되고, 현악으로 연주될 때는 오운개서조라 하여 거문고·가야금·양금·해금·비파·쟁 등으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여민락만·여민락령·해령 등을 연주할 때는 당피리(2)·대금(2)·당적·해금·아쟁·장고·좌고(편종·편경은 본령에만 추가됨) 등이 편성되었다.³²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당피리 중심으로 여민락만·여민락령·해령 등이 연주되고, 여민락은 현악과 관악으로 나뉘어 각각 오운개서조와 승평만세지곡으로 구분되어 각기 다른 악기편성법을 사용하여 연주되었다는 것이다.³³ 현악과 관악으로 나뉜 여민락이 현행의 관현합주 여민락과 동일 곡임을 감안 할 때³⁴ 이 방식은 민간 풍류방의 현악 여민락이 이왕직아악부에 의해 연주되면서 장엄한 느낌의 편성이 필요했고, 그에 따라 당피리 중심의 여민락 계열의 곡과는 차별되는 어떤 것이 필요하게 되어, 그 과정에서 관악 여민락이 시도되었던 것이 아닐까 판단되었다. 편성으로 보면 승평만세지곡을 연주할 때 향피리 대신 당피리를 사용하면 여민락만과 여민락령을 연주하는 편성과 같다. 그럼에도 향피리가 편성되어 구별한 것은 이 음악이 민간 풍류방의 음악에서 유래된 여민락임을 반증하고, 다른 3곡의 여민락과는 다르게 보았다는 것이다.

이습회의 연주목록을 보면 1925년 3월 25일 연주까지는 승평만세지곡을 관악으로 표기하였고, 그 이후는 현악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1929년 10월에 현악 오운개서조가 나오지만 이 때는 현악 승평만세지곡도 함께 연주되고 있어서 용어가 혼용되기도 하였다.³⁵ 그렇지 않다면 이습회를 통해 몇 차례 새로운 편성법이 시도된 결과 관악 여민락은 더 이상 연주되지 않고 현악 여민락 만이 연주되면서 용어가 통일된 것은 아닌가 한다. 이 여민락은 풍류방에서 주로 거문고와 같은 현악기에 얹어져 연주되었던 곡이므로 현악 위주로 연주되는 여민락이 더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국립국악원 연주에 있어서도 관현악편성의 여민락이 있어서 이것을 승평만세지곡이

유인물, 2004

³⁰ 1918-1921년 사이의 문서로 이왕직아악부의 실무자들이 행정적 필요에 의해 보관하던 날개의 문서철이다. 권도희, “장서각소재 조선아악의 해제와 근대음악사료적 가치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국내학술회의 유인물, 2004

³¹ 민악은 용비어천가를 가사로 사용하고, 현금, 가야금, 비파, 양금, 단소, 생황, 피리, 대금, 해금, 장고, 좌고, 박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여민락이다. 권도희, “장서각소재 조선아악의 해제와 근대음악사료적 가치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국내학술회의 유인물, 2004

³² 이해구, 『보정한국음악사』, 113 쪽, 119 쪽

³³ 여민락이 관과 현으로 구분되어 연주되는 방식은 『대악전보』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영조대의 『대악전보』에는 여민락, 여민락관, 여민락현으로 나뉘어 총 3종류의 여민락 계열의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악보가 전하지 않고 있어서 이 곡들에 대해 더 이상의 논의를 진행할 수 없지만 이러한 방식은 『속악원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속악원보』는 예편 권 4에 여민락만, 지편 권 5에 여민락관보, 여민락현보가 있고, 신편권 6에 만, 권 7에 령보가 수록되어 있다. 『속악원보』 권5의 여민락 관보는 현행 여민락령이고 여민락현보는 현행 여민락의 해당된다. 남상숙, “현존 궁중음악 형성의 역사적 고찰”, 『궁중음악의 음악학적 연구』, 전통 예술원, 2007. 93 쪽 -98 쪽

³⁴ 원곡은 여민락으로 표기되었음. 장사훈, 『한국악기대관』,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151 쪽 -163 쪽

³⁵ 장사훈, 『한국악기대관』,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151 쪽 -163 쪽

라 부르고, 현악 위주의 여민락이 있어서 이것을 오운개서조라 부르면서 두가지의 편성법으로 연주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로 볼 때 궁중음악이 무대연주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편성과는 다른 악기 편성법이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고, 현행 여민락이 관현악의 대편성으로 정착된 것도 이러한 과정을 통한 결과일 것이라 판단된다. 이외에 기존 곡들을 바탕으로 한 독주나 다양한 편성의 중주들도 이습회나 국악방송을 통해 시도되기도 하였다.

정리해보자면, 이시기에 이왕직아악부에 의해 연주되었던 여민락은 여민락만· 여민락령· 여민락· 해령 등이 있었고, 여민락만· 여민락령· 해령 등은 당피리 중심으로 연주되었고, 이 편성은 조선후기 전정현가의 전통을 이은 것이라 하겠다. 여민락은 현악과 관악으로 나뉘어 각각 오운개서조와 승평만세지곡이라 불리우며 연주되었으나, 후에 관악 여민락은 연주되지 않고 현악 여민락이 자주 연주되었고, 이 곡은 현행에서 현악 위주의 편성으로 연주되는 오운개서조와 대규모의 관현악편성으로 연주되는 여민락으로 전승 되었다고 하겠다.

한편, 민간에서는 1909년 9월 15일 발기회를 열고 국악을 전승하고 신악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최초의 민간교육기관인 조양구락부가 발족된다. 1911년에는 재정적인 후원회인 정악유지회가 발족되어 조양구락부는 발전적인 해체를 단행하여 조선정악전습소로 이름을 바꿔 정악의 전승과 서양음악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게 된다.

1927년 2월 16일 경성방송국이 라디오 방송을 개시한 이후로 1945년 8월 14일까지 19년간 국악방송이 송출되었다 최초의 국악방송은 1926년 7월에 여섯차례 송출되었고 그 기록은 『조선』에 의해 소개되었으나 이 시기는 구체적인 악공명 없이 조선음악 정악이 연주되었다.³⁶ 그 당시 음률은 영산회상을 뜻하면서 조선조 풍류방에서 연주되던 악곡을 총칭하기도 했는데, 주로 연주악기는 장구·거문고·양금·단소·해금·가야금 등이 담당하였다. 이렇듯 민간에서는 현악기 위주의 편성으로 영산회상이나 가곡이 주요 연주곡목으로 다루어졌고, 민간 고악보에 전해지던 여민락은 이왕직아악부에서 연주를 담당하게 되면서 현악, 또는 관악 위주의 여민락으로 분리되어 연주되다가 현악 여민락인 오운개서조와 거문고·향피리가 중심이 되는 관현악 여민락이 이왕직아악부의 연주곡목으로 정착된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민간의 풍류악은 이왕직아악부에 의해 연주되기 시작하면서 독주보다는 풍류방의 연주방식대로 현악위주의 편성으로 연주되기 시작하였으나 나중에는 대규모의 관현악 편성으로 변모되었다. 여민락은 이러한 과정에서 관악과 현악으로 구분되어 연주되었으나 현재는 대규모의 관현악 편성으로 연주되고 있다.

이왕직아악부는 구왕궁아악부를 거쳐 1951년 국립국악원으로 개원되어 궁중 및 민간의 전통음악을 보존 계승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국립국악원에서 연주되고 있는 여민락 계열의 곡은 여민락· 여민락만· 여민락령· 해령 등이 있다. 모두 무대 감상용으로 편성되어 연주되고 있지만, 2006년 10월 11·12일에는 여민락을 포함한 봉래의가 재현되었고, 2008년 4월 17일에는 용비어천가의 가사를 노래하며 함께 연주하는 여민락이 재현되기도 하였다.

현재 국립국악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민락의 악기편성은 거문고8·가야금8·대금2·해금2·피리2·대쟁·양금2·단소·생황³⁷ 등으로 이루어지거나 거문고5·가야금5·해금5·아쟁2·대금5·피리6·장구·좌고 등의 편성으로 연주하며, 승평만세지곡이라는 아명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현악 위주의 편성인 오운개서조를 연주하기도 하는데, 단소·대쟁·양금·거문고·가야금·해금·세피리·장구 등의 편성으로 연주된다.³⁸ 여민락만과 여민락령, 해령 등은 각각 경록무강지곡, 태평춘지곡 또는 본령, 그리고 서일화지곡으로 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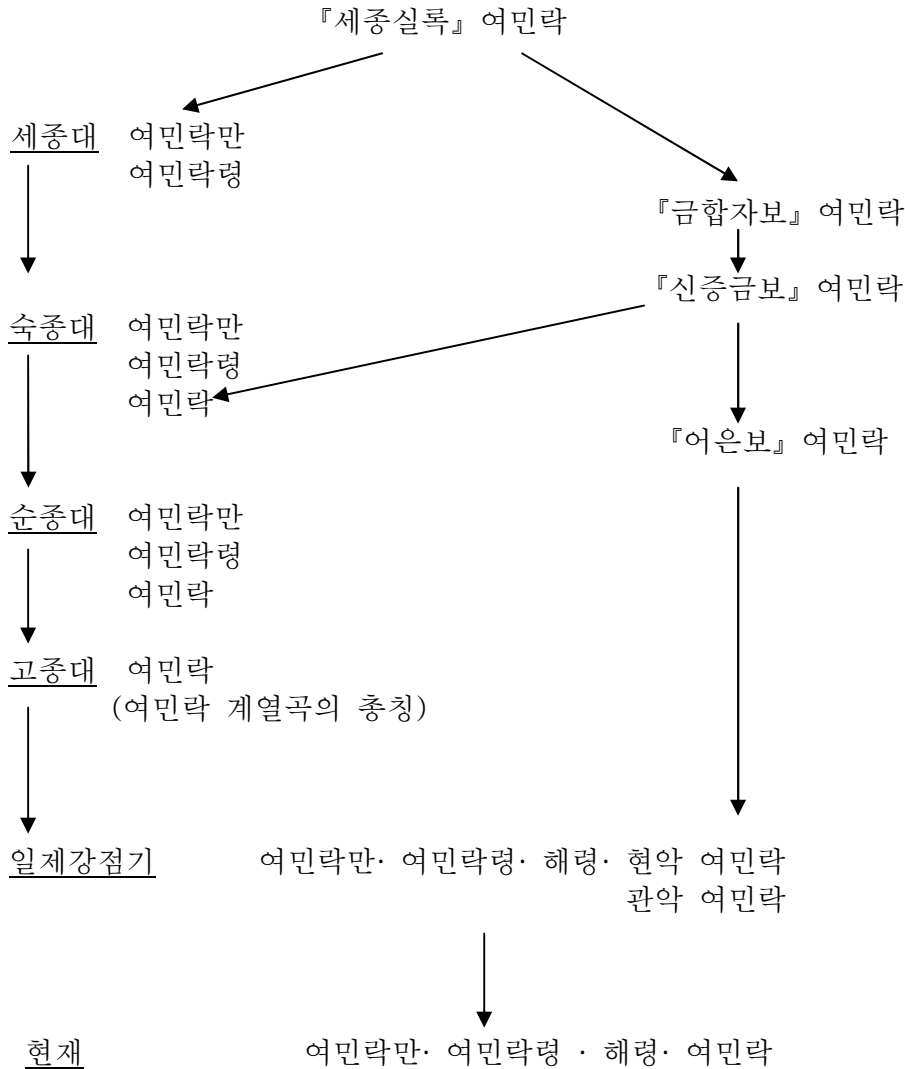
³⁶ 『일제 강점기 국악활동 자료집(2)경성방송국 국악 방송곡 목록』,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8 쪽 -9 쪽

³⁷ 『국악기연구보고서 2007』, 서울: 국립국악원, 2008 110쪽

³⁸ 2007년 3월3일 토요일상설연주

우며 전해지며, 당피리· 대금· 당적· 해금· 아쟁· 장고· 좌고· 편종 등으로 연주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세종조에 처음 창제되어 궁중과 풍류방에서 연주되어온 여민락의 변모 양상을 간단히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세종실록』 악보에 수록되어 있는 여민락이라는 단일 악곡이 조선조 궁중 의례와 민간 풍류에서 어떠한 연주 방식으로 행하여졌고, 이것이 이왕직악부를 거치면서 오늘날 어떤 형태로 전승되고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여민락은 『세종실록』 악보에 ‘여민락’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으나 세종조에 실제 궁중의례에서 사용될 때는 여민락만과 여민락령으로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숙종조에는 여민락만과 여민락령 이외에 새로운 여민락이 등장하여 궁중 정재의 반주음악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여민락은 민간 풍류방에서 연주되던 거문고 중심의 여민락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조선전기는 여민락만과 여민락령이 조참이나 하례 및 궁중연회에서 사용되었고, 조선 후기는 진연 및 양로연 같은 연향에서 여민락, 여민락만, 여민락령 등이 연주되었다. 이 음악을 담당할 악대는 전정현가· 전정고취·

등가 등이었다. 조선 전기는 관현악 편성인 등가와 전정헌가, 전정고취에서 여민락만과 여민락령이 연주되었지만, 조선 후기는 관현악 편성인 등가에서 속종대에 새로 궁중으로 유입된 여민락이 연주되었고, 관악편성인 전정헌가에서 여민락만과 여민락령이 연주되었고, 이러한 방식은 1910년 궁중의례가 단절되기 전까지는 큰 변화 없이 전승되었다.

한편 민간 풍류방에서는 『금합자보』(1572년)에서 여민락이 처음 나타나는데, 이 여민락은 『세종실록』에 수록된 여민락이 궁중 밖 민간에서 연주되면서 변화되어 기록된 것으로 보았다. 『금합자보』 다음에 나타난 『신증금보』에 수록된 여민락은 풍류방의 거문고와 같은 현악기에 적합한 선율 진행으로 바뀌어 조선 후기 민간 고악보를 거쳐 현행의 여민락으로 이어졌다. 민간 풍류방의 연주형태는 독주이거나 전문 악사를 포함한 소수의 연주형태였는데, 거문고·가야금·비파·양금 등과 같은 현악기가 주로 애용되었다. 이 시기의 연주형태는 문사의 개인문집이나 풍속화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1910년 이후 이왕직악부에 의해 연주되던 여민락은 전정헌가의 전통을 이어 받은 것과 민간 풍류방의 전통을 이어 받은 두 종류로 정리하였다. 당피리가 중심이 되는 편성으로 연주된 여민락만과 여민락령, 해령 등은 전정헌가의 전통으로 보았고, 거문고가 중심이 되는 편성으로 연주된 여민락은 민간 풍류방의 전통으로 보았다. 해령은 1920년대 이왕직악부에 의해 새로이 추가된 곡으로 추정하였다.

1922년 이후 이왕직악부에 의해 주도되던 이습회의 연주는 궁중음악이 의례를 제외하고 무대 연주용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여러가지 편성법을 제공하였다. 독주·중주·현악·관악·합악 등 궁중음악의 새로운 편성법이 시도되어 해방 이후 이왕직악부의 기능이 국립국악원으로 옮겨 졌을 때 조선시대와는 다른 무대 감상용의 편성법으로 연주될 수 있었다.

현재 여민락만·여민락령·해령 등은 당피리·대금·해금·아쟁·장고·좌고·당적·편종·편경 등으로 편성되어 연주되고, 여민락은 가야금·거문고·양금·해금·향피리·아쟁·당적·장고·좌고 등으로 편성되어 연주되고 있다. 이 두가지의 편성법은 전자는 조선조 궁중의 전정헌가 편성을 계승한 것이고, 후자는 조선조 풍류방의 편성을 계승하여 무대 감상용으로 확대 편성한 것이라 정리하겠다.